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제 학술 대회(10월 7일)

번역에서의 ‘위안부’ 재현

- “One Left”(김숨의 “한 명”)을 기반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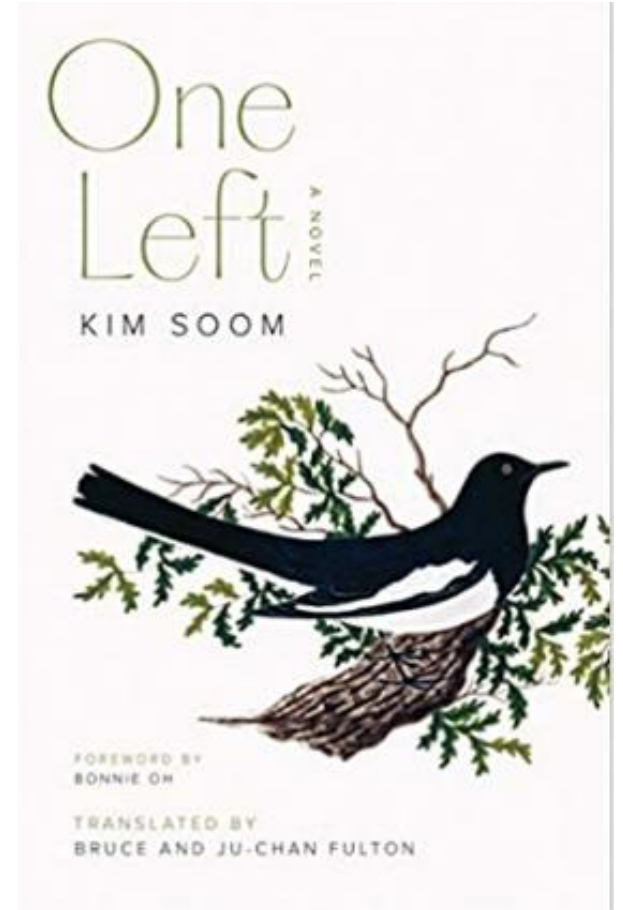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학과

이상빈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원작(위안부 증언 소설 “한 명“)과 비교해,
영어 번역 “One Left”에서 ‘위안부’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번역자: Bruce and Ju-Chan Fulton



주요 번역 사례

1. '그들의' 내러티브를 '우리의' 내러티브로

화물트럭이 심하게 흔들려 해금의 얼굴과 눈동자는 따로 흔들렸다. 소녀들은 한 화물트럭에 실려 가면서도, 저마다 가는 공장이 어째서 다른지 의심을 못할 만큼 어리고, 아무 것도 몰랐다.⁹³ (p. 61)

The truck was rattling terribly, but her face and eyes showed that Haegŭm herself was rattled. *We were too young, we didn't know a thing*; they never doubted²³ how it came to be that they were all led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fferent factories. (p. 43)

- 3인칭 복수대명사 they (girls)가 아닌 1인칭 복수대명사 we 사용
- 증언의 here-and-now 강조
- 생존자에 대한 독자의 감정적 유대 강화

2. 인물의 생각을 풀어 설명하기(unpacking)

올케는 김학순 그 여자가 티브이에 나와 우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정신대에 갔다 온 여자들 보고 일본에서는 장사하러 나온 여자²⁶⁸라고 한다면서요?”

올케는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했다.

“장사요……?”

“몸 파는 장사지 뭐 장사겠어요.” (p. 171)

Sister-in-law also mentioned that she had seen Kim Haksun on television, weeping. “And did you know that in Japan they say that the women in the Volunteer Corps went off to practice a trade?”¹⁴ *Volunteer Corps?!*

“What trade?”

“Selling their body. You know that.” (p. 125)

- 자유직접사고(free direct thought), 이탤릭체 → 주인공의 마음을 읽는 느낌(독자의 주인공화)
- Interrobang: 주인공의 복잡다단한 생각을 명시화(의심+충격)
- Turn-taking 변화 없음: 주인공의 즉각적인 반응을 문법화

3. 철자 바꾸기

만주 위안소에 끌려온 지 3년쯤 지났을 때, 하하가 소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싱가포르에 가고 싶지 않느냐?”

“싱가포르요?”

“싱가포르에 가고 싶으면 말해라. 보내주겠다.”

소녀들이 하하의 눈치를 살피면서 웅성거렸다. ...

수옥 언니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하가 싱가포르에 가라고 했다.¹⁷⁹ 이튿날 아침 하하는 싱가포르에 가기로 한 소녀들에게 광목 보따리를 하나씩 안겨주었다. (p. 116)

One day when she'd been at the comfort station about three years, *haha* assembled the girls and asked, "Who wants to go **Singaporu**?"

"**Singaporu**?"

"Tell me if you want to go, and I'll send you there."

...

Suok *onni* kept mum, but *haha* told her to go to **Singapore** anyway.²⁰ (pp. 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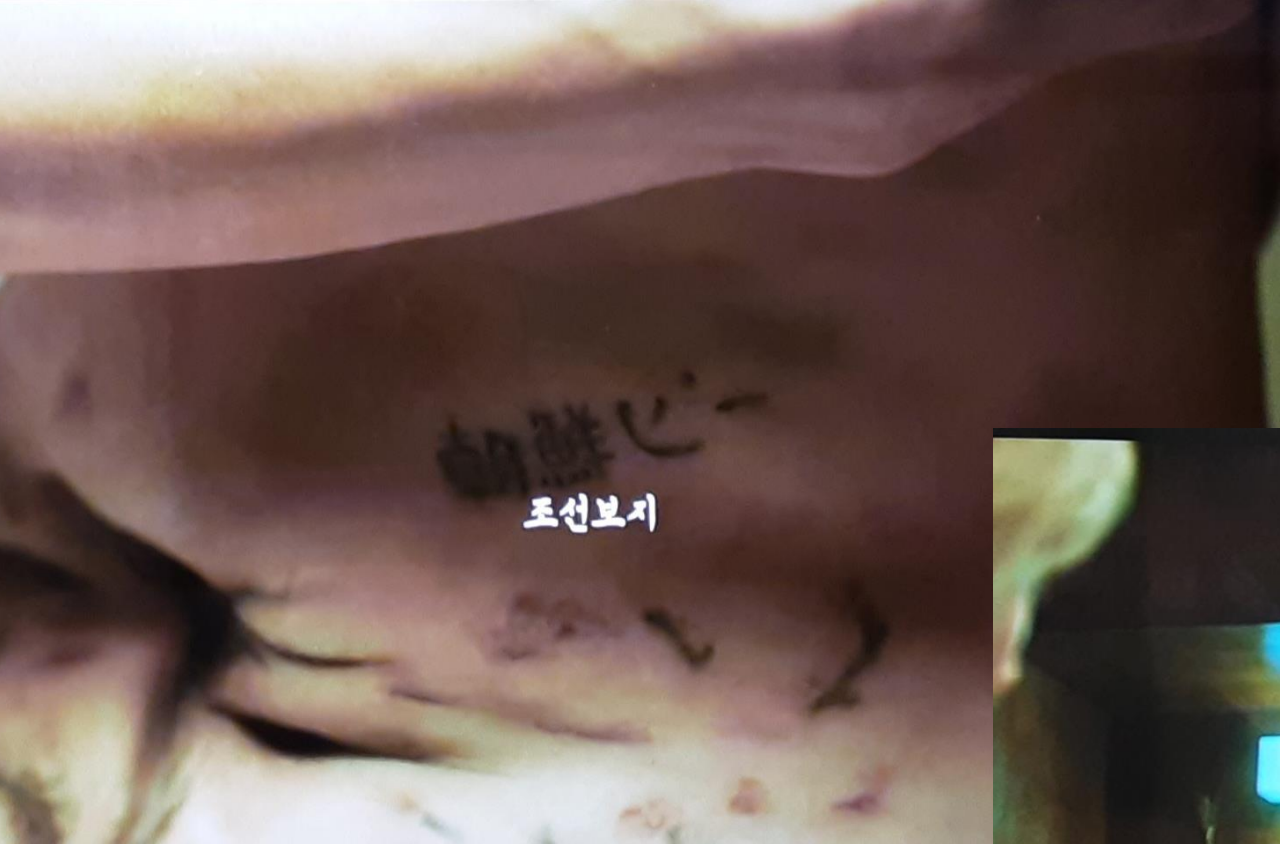
- Singapore → **Singaporu** シンガポール → Singapore: '싱가포르' 철자를 일시적으로 바꿔 폭력의 시작점과 주인공의 무지(순수함)를 강조
- 일본어 로마자 표기는 대화의 현실성(realism)을 높임 ("ear for conversation ... tuned for literary purposes")

4. 표현적 의미 강조하기

위안소를 소녀들은 삐야라고 불렀다. 하하와 오토상도, 일본 군인들도, 중국인들도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소녀들을 조센삐라고 불렀다. 삐가 중국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한다는 걸 안 뒤로 그녀는 조센삐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다. 조센삐는 그녀가 알고 있던 욕들 중에 가장 더럽고 역겨운 욕이었다. (p. 104)

Ppiya was what the girls called the comfort station. The term was used by *haha*, *otosan*, the Japanese soldiers, and the Chinese as well. The girls were *Chosen ppi*. This was the expression she herself most hated hearing, once she learned that *ppi* was Chinese for “cunt.” Among the vulgarities she’d learned, *Chosen ppi* was the foulest and most degrading. (p. 76)

- “여성의 성기”에 해당하는 female genitalia는 맥락적, 표현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함



영화 “히스토리”
자료화면(자막): 넷플릭스





우리들한테는
'조선 보지, 조선 보지' 했고



그 말 듣는 게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영화 “허스토리”
자료화면(자막): 넷플릭스



영화 “아이 캔스피크”
자료화면(자막): 넷플릭스

5. Generic “you” 사용

그녀는 자신이 있었던 곳이 위안소라는 것을 몰랐다. 일본 군인을 받는 곳으로만 알았다. 중국인 마을에 갔다가 보았던 3층 벽돌집도 군인을 받는 곳으로만 알았다. 위안소니, 위안부니 하는 말을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 만주 위안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소녀들은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¹⁸⁶ (p. 121)

She herself didn't know that the place she had come to was called a comfort station, **only that once you were there you took Japanese soldiers**. The same for the three-story brick building in the Chinese village. Not until she was older did she understand what a comfort station and a comfort woman were. ... Not until they arrived at the Manchuria comfort station did the girls imagine there were such places in this world.²⁷ (p. 88)

- 일시적으로 “you”를 사용. 이 대명사는 실제 독자(actual reader)도 아니고 대화 참가자(participant in the unfolding event)도 아님
- Generic “you”: a non-formal equivalent of *one* that refers to people in general.

Compared to the alternatives (*a person, people, one*), [the generic] *you* **brings the events described to addressees**, whether or not they are or could **actually be participants** in them; it makes the text **more ‘personal.’** (Berry, 2009)

- 독자의 몰입도를 높임, 희생자에 대한 감정 이입 강화
-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 트라우마 문학에서 지향하는 독자와 피해자의 동일시 강조, 독자의 감정이입 강화

6. 메타포화(metaphorizing)

그곳에서 열여섯 살이던 군자가 애를 가져 배가 불러오자 그들은 말했다
.

저년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더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라.⁸ (p. 15)

When 16-year-old Kunja got pregnant and her belly began to swell, they said, “The bitch is young and pretty, **low mileage on her, can’t afford to trade her in yet**, so just take out her uterus.”⁸ (p. 9)

메타포 구조: THE GIRL IS A COMMODITY LIKE A CAR

The word *mileage* means the number of miles a car has travelled and the amount of advantage gained from something.

The phrasal verb *trade something in* means to “give something such as a car to the person you are buying a new one from, as part of the payment.”

- 피해자를 ‘거래 가능한’, ‘감가상각되는’ 단순 소비재로 인식
- 이런 표현 방식은 피해 여성들이 사물화(objectified), 비인간화되는(dehumanized)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

7. 문화적 서브텍스트(cultural subtext) 강조하기

세상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증오하고 싶지 않다.³⁰⁸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용서할 수 없다.³⁰⁹

그 한마디를 들으면 용서가 되려나?

신도 대신해줄 수 없는 그 한마디를. (p. 248)

Those words had to come from a certain source and no other,
not even God in Heaven. (pp. 180–81)

Those words **had to** come from a certain source and no other, not even God in Heaven.

(pp. 180–81)

- “(그) 한마디”의 실질적 의미를 분명히 함: 책임져야 할 대상이 현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
- 가해자를 암시할 때 ‘점증적 전개’ 방식을 사용: “a certain source,” “no other [source],” and “not even God in Heaven.”
-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had to**”: 가해자의 의무를 강조

8. 미주의 명시화

정액을 삼키라고 했다.⁷⁸ ...

정액을 삼킬 때 그녀는 똥을 먹는 게 낫다 생각했다.⁸⁰ (p. 53)

78) 황금주

...

80) 황금주 (p. 261)

7 Hwang Kŭmju: *Ilje kangjŏmgi*.

...

9 Hwang Kŭmju: *Kangje ro kkŭllyŏgan Chosŏnin kun wianbu tŭl*, vol. 1.
(p. 198)

- 독자가 실제 증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
- “일제강점기”(p. 632): 병사들은 ... “정액을 삼켜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권, p. 102): 나는 “네 똥을 먹으라면 먹었지 그런 짓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내용 삭제

의도적 생략

입으로 가져가던 국숫발이 미끄러져 대접 속으로 떨어진다. ... 군인들이
못을 한 3백 개 심은 나무판을 들고 막사 뒤에서 나왔다. ... 그들에게는
소녀를 죽이는 게 개를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았다.¹⁵

그들은 석순 언니를 땅에 묻지 않고 변소에 버렸다.

그들은 죽은 소녀에게 땅도 아깝고, 흙도 아깝다 했다.¹⁶ (pp. 19- 21)

Haha didn't bother burying **Kisuk** ōnni. Why waste dirt and soil on her?

¹⁶ (p. 42) → 1.5장 분량의 원문 텍스트가 사라짐

일본어 번역 ひ と り “One person” (2018)

彼らはソクスン姉さんを地面に埋めずに便所に捨てた。
彼らは死んだ少女には地面も、土も勿体ないと言った。¹⁶ (pp. 16–17)

김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중[글을 쓰면서 세운 원칙]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석순’ 언니 이야기가 제게는 또 다른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만큼 끔찍하고 자극적이어서) 그 증언이 좀처럼 믿기지(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어 번역에서의 ‘생략(omission)’은 원작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했다!

The translations that do justice to the experiences of victims help to secure justice for the victims.

피해자를 위해 번역한다는 것은

- 본질적으로 윤리적이고 자의식적인 행위
- 피해자의 내면과 문화적 서브텍스트를 포착하는 것
- 번역독자들이 피해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문을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음